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8호 [투계 제2716호]

주제 111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음력 8월 22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우리러보며

일흔네번째 년를 새긴 공화국의 하늘가에 람홍색 국기가 새차게 펄럭이고있다.

언제 보아도 위대한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고 사랑하는 이 조국을 온 누리에 빛내어갈 드높은 맹세와 각오로 더운 피가 붉게 하는 우리의 공화국이다.

눈길 들어 우리의 운명과 찬란한 미래가 실려있는 공화국기를 우리러느니라 참으로 비상한 의미를 안고 숭엄하게 어려온다.

성스러운 그 기복과 그 세찬 퍼덕임에서 내 조국을 승리와 영광, 강성과 존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시고 세기를 이어 우리의 국기를 높이 휘날려가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

1

나에게는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스물두해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관문점분리선을 넘어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길 때 휘날렸던 공화국기발이다.

지옥에서 락원으로 극적인 운명전환을 하던 그 있을수 없는 날에 나는 손에 든 작은 람홍색국기를 두볼을 비비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나의 어제와 오늘, 우리가 가정의 삶과 미래와 땀수없이 련결되어있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국기와 함께 흘러온 만만사연이 추억깊이 돌이켜지곤 한다.

해방전 나의 어린시절은 성진(현재 김책시)에서 흘러갔다. 나의 아버지는 일제가 경영하는 제강소에서 하루 16~18시간씩 마소처럼 혹사당하였다. 어린 내가 볼 때마다 몸서리치곤 하던 아버지몸에 난 끔찍한 상처자리는 그때의 모진 교생이 남긴 원한의 흔적이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때문에 늘 허리를 펴지 못하였다. 일곱자식을 먹여살리느라 밤새워 쉬지않고, 새벽까지 하는 어머니에게서 학비 같은것은 기대할수가 없었다.

나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였던 그 모든 슬픔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시고 그날부터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내리었다.

집안에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돈이 없어 학교조차 변변히 못다니던 나도 형님, 누나들과 함께 줄줄이 글소리 람랑한 교정에 들어섰다.

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북남조선총선거를 진행할 때 중학교에 다니던 나는 밤낮이 따로없이 검덕과 허천 등 여러 지방을 오가며 신바람이 나서 선전활동을 벌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던 날 나는 학교지붕우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처음으로 보았다.

새 조국의 환희와 격동인양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힘차게 퍼덕이던 공화국기발! 나는 넋을 잃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쩐지 가슴이 찡하니 저려오고 눈곱은 찢어질 듯이 젖어들었다.

나에게도 조국이 있고 우

리의 국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밀려드는 행복감에 가슴이 벅근하였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국가의 상징인 국기가 있다. 그 가운데는 국화나 국수, 국조 또는 해와 달, 별 혹은 자기 민족이 숭상하는 맹수의 그림자나 민족이 자랑하는 특산품을 새겨놓은 국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색깔로 자기 나라의 지리적특성을 반영한 국기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가 제일로 아름답고 멋이 있었다.

얼마나 깊은 뜻이 새겨져있고 형태와 색깔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기운찬 우리의 국기인가.

후날 들은 이야기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앞으로 창건될 국가의 국기를 만들 때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우리 나라 국기는 조선의 낫, 주체의 사상과 정신이 백백치는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국기제정과 관련하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고 한다.

국기를 붉은색, 흰색, 푸른색을 바탕으로 만들도록 하시고 붉은색은 항일선열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이 흘린 피와 공화국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땀의 위력을 상징하며 흰색은 우리나라가 항강도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결백하게 살아온 단일민족국가라는것을 상징하고 푸른색은 민주주의의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씩씩한 모습과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3가지 색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아버지가수령님.

람홍색국기의 붉은 오각별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성을 나타내 승리와 영광, 존엄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신 수령님에 의하여 새겨진것이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기운차게 휘날리는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는 나의 머리속에 인디아의 이름난 시인 타고르가 지었다는 시구절이 떠올랐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등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펄럭이는 공화국기는 타고르가 예언했것처럼 절세의 영인을 모시어 등방을 비치고 세계를 밝히며 떠오르는 새 조선의 장엄한 모습이다.

그 험한 퍼덕임은 예속의 울가미를 벗어던지고 온 세상을 향해 웨치는 자주의 만세소리였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의 씩씩한 기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시내 조국, 그 품이 너무도 소중한기에 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남만주 인민군대에 단원하였고 남쪽으로 진격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불타는 락동강도 넘었다.

지금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여 비발치는



적란일에 찢기고 구멍이 숭숭 난 색바랜 공화국기발을 바라볼 때면 이 기발 휘날리며 1211고지를 지켜 청춘도 생명의 바쳐 싸우던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곤 한다.

불러내 고지에서 공화국기를 우리러 다신 그날의 맹세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3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철창속에서 보낸 나의 마음속에 서언제 한번 잊혀지거나 흔들린적이 없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철창속에서의 투쟁은 그대로 인우들의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였다.

몸은 비록 캄캄한 먹방에 갇혀있어도 전후 재더미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날게 해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성을 늘 마음속에 그리며 신념의 기둥을 억척으로 세웠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었다.

그러던 1994년 7월 8일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비통함에 쓰러지고말았다.

한동안 앞이 캄캄하였다. 이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러나 태양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우리 조국에는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었다. 내가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처음으로 보았은 신문에서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키고 더욱 빛내여가시려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절로일수 있는 회색적인 현신의 장정이였다.

그이께서 계시었기에 머지않아 공화국기가 내리워질것이라는 적들의 꾀를 흘릴 리라하며 조국에서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새긴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1》호가 만리창공으로 날아올랐고 철벽의 성새로 다져진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공화국기가 더욱 기운차게 휘날렸다.

그뿐이 아니였다.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장과 라남의 봉화가 타올랐다. 대규모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의 완공, 현대적인 닭공장과 메기공장, 양

어장들이 생겨났으며 구월산과 칠보산, 장수산 등이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꾸러졌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와 의리의 손길에 받들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물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수십년세월 행연할수 없는 고문과 약속속에서 공화국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고향이 지켜온 신념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어장들이 생겨났으며 구월산과 칠보산, 장수산 등이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꾸러졌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와 의리의 손길에 받들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물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수십년세월 행연할수 없는 고문과 약속속에서 공화국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고향이 지켜온 신념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였다.》

아 우리의 국기에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다.

대륙간담도미싸일 《화성포-17》형이 솟아오른 그 아득한 높이야말로 세계의 상상봉에 올라선 우리 국가의 국력의 높이, 존엄의 높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수록 우리 공화국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은 격정으로 젖어든다.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넘내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며 희생적인 헌신으로 불패의 강국을 떠올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무손 말로 다 칭송할수 있리라.

사상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고 출중하던 령도력과 담력과 배짱에서도 이 세상 제일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세계는 작고도 큰 나라, 강대한 조선을 신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국력이 강하면 국기도 빛나는 법이다. 온 세상이 우리를 탁월한 위인을 모실 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되고 존엄과 위용을 떨칠수 있다는것을 우리 조국의 70여년력사는 긍지높이 말해주고있다.

어제 그뿐이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세계가 보란듯이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그 위용도 자랑스럽지만 람홍색공화국기아래 날아날마다 인민의 리상향, 회한한 별천지로 몰라보게 변모되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또 얼마나 눈부신것인가.

얼마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찾았던 나는 현장에 나뭇은 인강같은 글밭을 본적이 있다. 《람홍색국기아래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있는 글밭인가.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 그 모습을 세상에 제일 위대한 우리 인민의 모습으로 정히 새기고 우리 인민이 최고의 존엄과 지위에 맞는 가장 훌륭한 행복을 누리게 할 리상과 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손길아래 최상의 문명과 행복의 평마루를 향해 하루를 1년, 10년맛집이로 질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조국이다.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을 역세게 놀려두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높아지는 새거리, 새 문명을 체험할 때마다 나는 탄복을 금치 못하곤 한다.

지난 4월 평양의 송화거리에 사회주의명명의 웅거한 상징탑마냥 하늘높이 솟아난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들에게 통째로 안겨지는것을 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했는데 얼마후에는 남조선 같은면 특권층이나 살수 있는 보통강간다락식주택구에 보급자리를 편 평범한 근로자들을 보면서 눈곱을 훑치였다.

행성의 수많은 언론들이 《세계에 유일무이한 신형대륙간담도미싸일》, 《가장 거대한 괴물미싸일》이라고 대서특필했듯이 《화성포-17》형의 몇가지 공개자료들만 놓고보아도 공화국전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능력을 잘 알수 있다고 본다.

대륙간담도미싸일 《화성포-17》형에 새겨진 붉은별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

그 옛날 기껏해야 초가삼간이 꿈이었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초고층, 고층의 현대적인 새집들에서 부럼없이 살고있으니 천지개벽이란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행복과 문명이 련이어 꿈만 같이 펼쳐지는 우리 조국이다.

룡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교육자살림집들, 인민야외빙상장, 유류야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과학기술전당, 마식령스키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칠령아래사과바다, 현대적인 화장품공장들...

만복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조국땅 방방곡곡에 솟아올라와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고있다.

그런처럼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정녕 노래 《조국찬가》의 구절 그대로 오랜 세월 바라던 우리 인민의 모든 세계적수목이 풍요한 열매로 주렁지는 내 조국이다.

일찌기 어느 한 작가는 《조국은 훌륭하기때문에 사랑할것이 아니라 제망이기에 사랑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조국은 제망이기에 사랑할뿐 아니라 훌륭하기에 더욱 사랑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렇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강대한 우리 조국이 제일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우리의 사회주의대지가 제일 따뜻하고 포근하다.

우리의 국기는 결코 세월의 바람에 의해 나뭇기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심장의 박동으로 세차게 휘날리고 쌓으신 만고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그이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위대하며 우리의 공화국이 세기를 이어 창공높이 휘날리고있는것 아니라.

하기에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 성스러운 그 기록에서 나는 존엄높은 강대국의 위대한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숭엄히 우리러며 온 세상을 향해 소리높이 웨친다. 천하제일위인을 높이 모시어 승리는 영원한 우리의것, 조선의것이라고!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우리의 국기는 무궁토록 나뭇길것이라고!

나는 이 글을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우리의 국기》의 구절을 새겨보는것으로 마감하려고 한다.

... 우리가 지키는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국기 불멸하리 영광찬 공화국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뭇가야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주체조선의 불가항력 - 일심단결

공화국의 력사에 또 한돌기의 자랑스러운 년륜이 아로써겨졌다.

누구나 승리자의 크나큰공지와 행복속에 공화국창건74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만수대기슭에서는 온 나라인민이 지켜보는 속에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경축행사에 위상떨치는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불가항력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사시로 펼쳐보인 특색있는 공연이 진행되어 경축의 밤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게 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모든 영광을 맞이할 총성과 애국의 일원단결이 맥동치는 공연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으며 령도자를 우리러 참가자들이 열광의 환호를 련속 터치는 만수대기슭은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힘을 과시하는 뜨거운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세상에 오직하나 우리 공화국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절대적인 힘이다.

공화국의 성스러운 력사는 단결로 개척되었으며 대를 이어 단결의 위대한 힘으로 승승장구하여온 긍지높은 행로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단결이 있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할수 있었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물리치고 전승의 기적을 환희롭게 안아올수 있었으며 적대세력들의 가슴되는 암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을 이겨냈으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고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주체조선이 가진 이 절대적,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마련해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일찍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시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셨다.

바로 이런분이기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는 위대한 지론을 내놓으실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일심단결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의탁한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공화국의 고귀한 전통, 영원한 주춧돌로 될수 있었다.

가려져있던 전화의 나날 강원도의 병동농민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대답은 령도자

와 인민이 어떻게 하나로 굳게 뭉쳐 침략자들을 쳐물리치었는가를 감동깊게 보여준다.

주체39(1950)년 10월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밤 전선길을 달리시다가 어둠속에서 북행길에 오른 인민들을 만나게 되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행의 맨앞에서 탈구지를 끌고가는 로인걸음으로 다가서시여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느냐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미처 위대한 수령님을 알아보지 못한 로인은 북쪽으로 간다고, 인민군대와 함께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이 관리통에 김일성장군을 왜 찾아가는가고 하시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물음에 로인은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장에서 이긴다고 힘주어 대답 올리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따르는 길에 승리가 기다

는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굳게 뭉쳤기에 공화국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올수 있었고 전후에는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고 하던 북구건설을 단 몇해만에 해체되고 남들이 수백년이 걸려서야 했던 공업화를 천리마를 타고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이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었다.

1990년대중엽 공화국은 민족의 내국상과 련이온 자연재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박등 등 전대미문의 격난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엄혹한 시련의 나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굳결강화의 길을 걸으셨

으시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으시고 쪽잡과 꿰기밭으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는 전체 인민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더욱 굳게 결속시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기적을 안아오게 하였다.

주체92(2003)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그리워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은 자신을 그리워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고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하신 뜻깊은 교시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는 고귀한 명언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그리워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

려주시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목숨까지 내걸고 지켜야 하는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자리잡고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 고백되고있는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이다.

인민을 위하여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길, 열사부무의 길은 사나운 풍랑도,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삼복의 폭염도,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병마도 막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모시듯이 인민을 위해야 한다 하고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는 숭고한 인민관, 군인들을 찾아 적의 총구가 도사린 최전방에까지 서슴없이 나가시는 병사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시러 병을 앓는 사람들과도 때때로 이 드나드는 약국에도 나가시었던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은 천만민민의 심장을 령도자에 대한 총정으로 더욱 끓어번지게 했고 그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더 반석같이 다지는데로 이어졌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방위대전의 승리를 안아오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중산과 창조대전을 힘있게 밀어붙이고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있으며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 건설부문에서는 올해 계획된 주체화대상공사와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엄혹한 도전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굳게 자리잡고있기에 그이의 구상은 곧 인민의 꿈과 리상이 되어 현실로 펼쳐지고 그이의 결심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되어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안아오고있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의 원천이다》, 《조선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김정은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조선의 일심단결은 영원하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지향을 함께 하고 그 길에서 오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루어진 혼연일체야말로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의 관건이며 이겨내며 천하제일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릴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 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힘,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적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질데 대하여 지적 하시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 땅위에 일심단결의 력사를 써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더욱 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천하제일의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리은심



지금 날로 우심해지는 재해성이상기후현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들불과 산사태, 폭우와 큰물에 의해 수많은 인적 및 물질피해를 입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재해성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들이닥치는 자연의 판관으로부터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깨닫게 하고있다.

자연재해를 막고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세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토관리부 개편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건설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켜나가는것을 국토관리부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방향, 총적과업으로 제시해주시었다.

그이께서 하신 력사적인 담화에는 공화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드시려는 열렬한 애국의 세계가 비껴있다.

국토관리사업의 방향과 방도에 대해 활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시어 온 나라에 나무심기운동의 번바람을 불려일으키시는 한편 치산치수, 사방야계

공사를 계획성있게 내일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국가비상설재방지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

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천명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어지거니 침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살군제와 영양액주기를 제때에 할수 있는 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있다.

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고 후대들에게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찬란한 그떡없을 금수강산을 물려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의 산천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웃음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국가적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는 등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

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천명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어지거니 침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살군제와 영양액주기를 제때에 할수 있는 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있다.

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고 후대들에게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찬란한 그떡없을 금수강산을 물려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의 산천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웃음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국가적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는 등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

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천명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어지거니 침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살군제와 영양액주기를 제때에 할수 있는 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있다.

어지거니 침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살군제와 영양액주기를 제때에 할수 있는 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있다.

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고 후대들에게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찬란한 그떡없을 금수강산을 물려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의 산천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웃음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국가적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는 등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

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천명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어지거니 침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살군제와 영양액주기를 제때에 할수 있는 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봉사활동의 기준

몇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미미상점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미미상점점을 상업봉사기지의 본보기답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늘여가나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의 행복에서 제일 큰 락을 찾으시는 그이시기에 미미상점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에게 인민들의

은 상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준! 일꾼들에게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을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순간이였다.

식락의자들

언제든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천거리의 한 식당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식당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탁의자가 인민들이 앉기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못한것을 대변에

는 이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려면 직각으로 앉아야 하였는데 직각으로 앉아 어떻게 밥을 편안히 먹을수 있었는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런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되지 않을것이라고, 식탁의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편안한 다움에야 미미상점점이라고 다정히 이르시었다.

보시고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일꾼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시고 그가 앉은 모양을 이모저모로 다시금 살펴보시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사랑받아 지어주신 이름들

풍치수려한 대동강에는 꽃바구니모양의 섬인 룡라도가 있다.

오늘 룡라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민의 문화휴식장소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룡주장과 배구장, 모래리배구장까지 있는 룡라도물놀이장, 립체를동영화관과 거울집, 웃음집, 미니골프장이 있는 룡라도유회장, 풍덩들이 재주를 부리는 룡라도풍덩어판을 비롯하여 섬의 여기저기에 꾸려진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이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라도를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드시어 인민들

에게 이도록 훌륭한 룡라도인민유원지를 마련해주시었다.

주체101(2012)년 4월말 이곳 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시어는 원수님께서 룡라도지구를 룡라도인민유원지로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치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보아도 룡라도인민유원지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유원지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룡라도인민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 유원지건설에서 사소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흙먼지바람이 날리는 험한 날에도 몸소 종이 장우에 그림을 그려가시며 유원지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유원지로 건설되도록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리고 유원지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몸소 첫 《손님》이 되시어 인민

들이 타게 될 유희기구의 안정성까지 확인해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한송이 또 한송이 피우신 꽃송이들이양 꽃바구니모양의 섬을 가득 채운 훌륭한 문화휴식터들에서 오늘 인민은 기쁨과 랑만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본사기자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면적으로
폐지할데
대한
조치

공화국은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의 전도사,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로 내세우고 국가부담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폐지할데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그해 4월 1일부터 수업료를 완전히 없애는 역사적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으며, 전면적으로 폐지할데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이 채택되었다.

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면적 무로 교육제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위대한 한 수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유격근거지들에 아동단학교들을 세우고 무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25(1936)년 5월 5일에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해방된 조국에서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시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 취해주시였으며, 전후에는 전면적 초등무교육과 전면적 중등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학교(당시)와 초급중학교(당시), 초등학교, 유아원, 기능전수학교, 사범전문학교, 각종 특수교육기관, 각종 간부양성기관 등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는 나라



오래동안 인류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를 예뻐하며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지상천국을 그려보았다. 하다면 인류가 이처럼 바라던 지상천국은 이룰 수 없는 공상이었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종교계의 이름있는 한 목사는 기자에게 《조선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성서에 있는 모든것이 이미 이루어졌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서방의 한 인사도 사회주의적시책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며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인민의 지상천국이다. 죽어서 천당에 갈것이 아니라 현세의 지상천국인 조선에서 살고싶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인류의 이상이 실현되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세인의 칭송이라 해야 할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어길 수 없는 국책으로 하고있다.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편의가 우선시되고있으며 누구나 일터의 주인이 되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다.

《나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껏 이처럼 따사로운 품이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셨었다는것을 다 모르고 살았습니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말은 평안남도 숙천군의 평범한 농장원녀성이 러친 심장의 고백이다. 뜻하지 않게 사경에 처하였던 그를 도병원의 의료진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을 나서는 그의 눈앞에 어려웠다. 머리맡에서 밤을 밝히며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자본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불모지》, 《공정과 평등이 사라진 땅》... 이것은 남조선의 그 어느곳에서나 울려나오고있는 저주와 개란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있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며 비판과 절망속에 살아가고있다.

살림집문제만 놓고보더라도 특권계층들은 여러 호화주택들을 독차지하고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고있지만 서민들은 쫓박과 집값, 판자집과 같이 아닌 집에서 살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언론들이 《이 땅에 아바트는 많지만 하늘아래 서민들이 맘편히 누울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하듯이 남조선에서 집이 없어 한지거나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초보적인 노동의 권리와 조건마저 유린당하고있다.

《업자들은 자동차부속품이나 기계는 조금만 손상이 되어도 큰 번이라도 난듯이 고대하지만 노동자가 다치거나 기계에 깔리는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흔히 있을수 있는 일로 무난히 여긴다. 이 땅에서 노동자들은 기계부속품보다 못한 인간, 무권리의 존재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절구만이 아니다.

돌아가는 기계에 갇히고 집합에 깔리고 떨어지는 돌에 맞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하루에도 주시며 명석 생애를 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남조선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한쪽에서는 사회의 1%도 안되는 특권층이 돈을 몰수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속에 신음하다 숨지고있는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사회로 남조선사회야말로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사람 못살 지옥, 인권의 동토대이다.

특권층에겐 천국,
서민들에겐 지옥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어머니 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 평양의학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송예옥 -



오랜 작가들을 위해 로작자실을 내오도록 해주신 은정 어린 조치가 있어 여든살이 훨씬 넘도록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송봉렬선생이었다.

어제 그뿐이라. 다섯자식모두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의학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을 졸업하고 어엿하게 성장하였으니 그는 더 바랄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믿고 살라고, 그 품에서만 사람답게 살수 있고 너희들의 품도 실현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편이한 두 사회를 체험한 아버지의 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송예옥선생은 이야기했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축복이 있었기때문이라고.

《1961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이날 어머니수령님께서 내가 살고있던 중구역 경성동의 우리 인민반을 찾아오시였습니다. 인민반장을 하던 어머니가 너무 기쁜 나머지 갖난이런 나를 안고 수령님앞에 나왔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 태어난지 여덟달밖에 안되신 저를 사랑의 환포에 꼭 안아주시며 딸이 귀엽게 생겼다고, 앞으로 잘 키우라고 정을 담아 축복해주셨습니다.》

돌도 채 되지 않은 어머니수령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송예옥선생의 삶은 달 리될수 없었다.

태양의 따사로운 햇빛이 아기에 슬기를 준듯 송예옥선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로 잘하였다. 평양의학대학에

암흑에서 광명으로

공화국에서 첫 50대녀성 후보원사인 송예옥선생에게는 남달리 호칭이 많다. 정성리론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보건경영학분야의 실력있는 권위자, 손꼽히는 교육자...

교육자로서, 과학자로서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적인 길을 걸으며 그 비결을 알고싶어 열마진 우리는 송예옥선생을 찾았다.

평양의학대학에 도착하여 그를 만나보려고 하니 대학의 일꾼들은 그가 학생들에게 한강 강의를 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한동안 송예옥선생이 강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못볼처럼 빛나는 눈길들이 모아지는 속에서 강의내용을 친절하면서도 알기 쉽게, 폭넓고 깊이있게 배워주는 열정넘친 그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였다.

얼마후 송예옥선생과 마주 앉아 물었다. 인생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보니 먼저 떠오르는것은 무엇인가고.

《자식들이 성장할 때마다 제일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눈을 감기 전 박사가 된 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잊을수 없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야말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생전환을 하고 바라던 모든 꿈과 희망을 이룬 행복자였습니다.》

이외로 취재는 송예옥선생의 아버지(송봉렬)에 대한 이

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 《인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길에서》, 《광명백과사전》 등 국가적의의가 큰 도서를 편이하여 집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송예옥선생은 국제 학술토론회에서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해설론중하여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의 평범한 교육자로서 용담 할 일을 할지려 제 14차 전국교원대회 주석단에 앉혀주시고 몸가짜이 부르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실 때 이 세상 온갖 행복을 혼자 받아안은 심정이였습니다.》

평양의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수 있었는가고. 정말이지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으로 천만사람들의 삶을 행복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주는 곳이 바로 사회주의 내조국입니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축복속에 어엿하게 성장하고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올라선 송예옥선생. 오늘도 그는 키워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조국에 온갖을 갚고리 바쳐가며 생의 자욱을 닦아나고있다.

본사기자 홍병식



합구무언이 유일한 상책이다

우리 나라의 옛 동화에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참으로 많다. 그중에는 마음세착한 토끼형제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는 음흉한 송이의 달콤한 꼬임수에 넘어가 사냥장에서 총알을 모두 뿜은 탓에 잡혀먹힐 뻔했다는 동화이야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체방어와 생존을 위한 수단만은 소유해야 한다는 진리를 밝힌 이야기이다. 7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외세의 끊임없는 폭제와 침략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민에게 있어서 생존권과 발전권의 담보를 백배, 천배로 다지는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며 자주권행사이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여 했던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기를 이어 핵전쟁위협을 가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미제의 야욕을 첫 동개버리기 위해 허리를 조이며 무적의 절대방비를 마련한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우리 민족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살 수 있게 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결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외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 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인 핵위협과 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

련한 억제수단, 절대방비이다. 문제는 이러한 초보적인 리치도 모르고 대세도 분간 못하는 천하머저리들이 이 지역의 남북강토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것이다. 최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담대한 구상》이라는것을 지꽃게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식량과 의로품을 비롯한 경제지원을 약속한다느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경제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하는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수천만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을 몇t의 쌀알이나 자른깎들과 바꿔보겠다는 천치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미국놈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 군사적위협을 믿이지 않음은 너무나 잘 알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독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선택을 두고 다른 이외의 견해가 절대로 있을수 없다. 《하지만》이라는 말은 더우기나 통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우리의 국제인 핵무기를 놓고 더이상 요설을 부리지 않고 합구하고있는것이 유일한 상책으로 될것이다. 남조선문제전문가 김성

극악한 동족대결홍성의 발로

북침야망에 들뜬 윤석열역적패당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미쳐날뛰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윤석열역적의 집권 5년간 추진할 군사력건설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작성놀음을 벌이고있는것이 이를 보여주었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핵심국방정책》이라고 하는 이른바 《국방혁신 4.0》을 먼저 완성하고 그에 토대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작성발표하려 하고있다. 이른바 《국방혁신 4.0》은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중장체계제설계, 《국방과학기술개발》, 새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확립, 구조와 국방운영의 최적화, 핵심정전력확보 등으로 구성된 5개 분야 16개 중목의 목표로 세분화되어있다고 한다. 특히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한국형3축체계》 구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국방중기계획》 작성



남조선문제전문가 김성

제주제를 알인인한고

제 처지도 모르고 럽치지없이 행동하는것 혹은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것을 가리켜 오지람이 넓다고 한다.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꼭 그 꼴이다. 얼마전 역적패당은 《2022 서울안보대화》라는 막간극을 펼쳐놓고 내외의 《전문가》라고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등장시켜 그 무슨 《북핵대화》를 논의하고 있다. 상대도, 제 처지도 모르고 설치지는 무슨분별도 없, 초보적인 분별도 없, 는 해피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빠른 시일안에 조약하는것으로 《한미동맹의 세계화》를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홍성의 발로이다. 미국이 윤석열역적패당이나 섬나라것들의 등을 두드려주는것은 그들이 고와서

가 럽진된다고 한다. 역적패당이 전력중장체계 등으로 북침야욕을 실현해보려하는것은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미국의 대포함, 식민지화수입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상전도 무시워 떠는 절대적 힘을 지닌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는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피멸을 자청하는 행위이다. 뛰어야 버리고 날아야 하루살이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무분별한 미치광이놀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부러진 노루 한골에 모인다고 공화국의 무전막강한 위력에 집집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치않게 《북핵대화》를 속닥거리더니 어리석은 모의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미국의 하수인인 윤석열역적패당이 주대내게 최강의 핵보유국을 상대로 막대질해보겠다는것이야말로 색은 닭알로 청바위를 깨어보려는 허황한 망상이 아닐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공화국은 역적패당이 일본에 나아가 상전들과 벌인 《북핵수석대표회의》라는데서 동족을 걸고고며 《3자안보협력대화》, 《심각한 우리》, 《단호한 대응》 등을 떠드레 대해 특히 기적하고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빠른 시일안에 조약하는것으로 《한미동맹의 세계화》를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홍성의 발로이다. 미국이 윤석열역적패당이나 섬나라것들의 등을 두드려주는것은 그들이 고와서 리광철

칠칠야밤 《풍와대》플방에서 계승스레해진 거직을 거껴대며 미국산위스키(Jack Daniel)병을 기울이기를 그 얼마... 기분이 울적해질 때면 항상 《재크 다니엘》술병을 꺼내드는 역도이다. 술병에 찍힌 《USA》라는 글자에 눈길을 바느라내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열기가 북받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것이다. 지금 역도를 고쳐의 선언에 처넣은것은 얼마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 서명한 《인플레이션억제법》이다.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의 심각한 통화팽창을 감소시켜 지지표를 한개라도 더 그러모으려는 고심비긴 계획에 공감은 간다. 문제는 그것이 남조선의 전기자동차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이다. 생각해볼수록 어이없는 일이다.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후 고금리, 고물가, 고회환의 3중고로 아우성치는 민심을 다독여 인기를 올려보려던노릇이 다름아닌 미국에 의해 파란될줄이야, 그것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에 뒤투수를 얻어맞은것이다. 부랴부랴 미국에 《정부합동대표단》을 무어 떠나보냈지만 왜선지 개운치 않고 불안감이 자꾸만 갈마든다. 바이든이 어찌서 다름아닌 우리를 전기자동차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는가.

도대체 무엇때문?!... 술잔도 돌리고 려도 도리도리하는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를 때린다. 카랑카랑하면서도 독기가 서려있는 목소리... 그대 펠로씨다. 여든그령의 흡사 귀질같은 그의 눈초리가 사정없이 옥박해온다. 식은땀이 내똥의 속에 지난 8월초 서울에 왔던 미하원 의장 펠로씨와의 전화통화가 떠오른다. 그대 곁에서는 라산때문에 펠로씨를 외면한 대가를

물론 펠로씨를 환대하지 않은것은 본의아닌 대실수이다. 그렇다고 바이든의 눈밖에 날 일은 없었을것이라고 자제위안해왔는데... 결국 펠로씨가 그토록 강조했던 《보담》이 《인플레이션억제법》이라는 철퇴였던 말인가. 허나 제가 아무리 미국의 권력순위 세번째라 해도 대통령을 체질수는 없다. 아무렴?!... 하며 버릇처럼 도머리털을 짓는데 이번에는 김구리의 해사한 얼굴이 다가든다. 우리도 일본

넘는다. 속된 강정이나 마찬가지로 경제형편으로 돈주머니에 공손한 차있었지만 미국에만은... 내리던인 눈저축안에서 후막속의 비밀이 되새겨진다. (속채를 차고있는 삼성의 리재용에게 《8.15특별사면》대상에 넣어줄테니 대미투자를 하라고 회유한적이 마 귀신도 모를것이다. 검찰대 귀고있던 부정부패자료를 가지고 SKD 미국에 자금을 투자하게 협박했지. 특히 현대차그룹의 목줄을

히려 제편에서 (뚝박)이고 《유감》이라니?!, 《바이든에게 끄직한 《선물》주고 뽐맞은 적》, 《하와이까지 날아간 안보실장에게 《집에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억제를 잘 속독해보라》고 조롱한 백관 안보보좌관》, 《알고보니 남조선에 대한 대만의 7조원 반도체투자마저 가로챘던 미국》... 정계, 재계, 언론계의 비난과 아우조소로 서울장안이 소란해진것은 얼마후였다. (미국에 모든것을 바쳤는데 왜? 어찌서?)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특히 치르었다. 수십년동안 미국정계에서 《철의 녀인》, 《마녀》로 악명높은 로희한 펠로씨가 주름진 얼굴에 뺨은같이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뭐라고 하였던가.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다망한 속에서도 시간을 내준대 대해 감사하다고 했던가. 귀족의 마중이 없었어에 우리 미국인들끼리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랐나. 품위있고 성의있는 의견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잘 알게 되었다. 이 환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앞으로 꼭 보답할 기회가 있을것이라며 꼭 꼭 씌어말했지. ... 민정거러던 그 말투를 상기시켜보느라니 상판에 털벌레가 기어가는듯 오작하다.

처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손까지 해가며 설명하러들던 정보원 원장의 모습이 얼른거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한달전 미의회에서 추진하고있는 《인플레이션억제법》과 관련하여 일본이 미국과의 마후교섭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보고서를 올렸었다. 그대 호연장담했던 생각이 난다. 이제 보라, 뛰는 눈우에 내는 눈이 있어, 나만 믿으라고 큰소리를 치며 머뭇거리는데 그를 쫓아들이아 돌려보냈었다. 그럴만도 했다. 그렇게 득의양양해질 리유가 충분하였던것이다. 역도는 갑자기 회일이 북받쳤다. 내가 바이든에게 섬겨야만 했다. 얼마전

조여 바이든의 정치적이반인 조지아주에 전기자동차공장을 회사하기로 한것은 정말 신중한 모안이었어. ... 어느 누가 미국을 이쳐려 떠날수 있던 말인가. 하네비라도 이렇게까지는 효도를 못했었을것이다. 왜선지 두손까지 내들며 《행규》를 련발하던 바이든이 정경제 때오른다. (그래그래, 바이든이 내가 기울인 지성과 공헌을 생각해서라도 체면만은 봐줄것이다.) 《인플레이션억제법》이라는 방언이 들어맞은 뒤투수가 아직 빼놓고는 해도 된가 오해가 있었을것이라는 기대감이 술잔에 위스키가 되어 차오른다. * * 《금야 달려간 《정부합동대표단》에 미국이 오

그 서술에 그토록 애용하던 미국산위스키병이 휘뿌려져 지난 5월 바이든이 남조선방문기념으로 선물했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탁상명패에 부딪쳐 산산조각났다. 《그래,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어》라고 이죽거리는 바이든이 환각마냥 얼른거리고 《미국에 아부한것도 나고 배신당한것도 나니 벌을 받아야 할것도 너다.》는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고개를 떨근 역도의 머리우에서 길게 드리워진 줄무리들이 의미심장하게 흐느적거린다. 마치 교수대에 드리워진 울가미처럼... 김춘경

꼬리나 자른다고

어찌면 그러도 신통한가 굵하면 서슴없이 꼬리를 잘라 위협을 시면하는 도마뱀에 조급도 짝지 않을 《풍와대》의 주인이로다 《대통령》감투를 쓴지 이세사 몇달 민생은 낭떠러지 지지불도 최악 폐진 자루에서 보리알 새듯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부정부패 굵하긴 굵했던가보다 꼬리를 잘라버릴 공리를 했으니 《인적쇄신》 그럴사한 명분에 《대통령실》 개편이란 간판아래 짐싸들고 쫓겨난자 몇이요 보따리 궁질자 이제 또 몇이나 뿔런지 저마다 도살장에 와있는 기분이라

망잡도 제대로 못자겠다 아우성인데 제살구리에 혈안이 된 주인에게 가져다주어 잘리는 불행한 《꼬리》 도마뱀같은 윤석열 보며 터치는 탄식 이리라고 따라다녔던가 배신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어제 《꼬리》탓이라 갈수록 커만 가는 비난의 목소리 타고난 무지무능으로 받는 배척일진대 《꼬리》나 자른다고 기울어진 민심 달랠수 있리라 도마뱀은 꼬리잘라 위기 모면해도 역도는 민심의 판걸 피할수 없거니 온갖 오그랑수 아무리 부러봐도 등돌린 민심의 분노에 찬 목소리 《하루빨리 대통령감투 내려놓으라!》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불과 불이 오가는 참혹한 싸움관을 련상할것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상대를 물어먹기 위한 여야간의 정치적대결이 도수를 넘어 그야말로 《전쟁》이라 불려오는 정도로 치열하게 변저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윤석열역적은 《국민의힘》과 악

그에 대한 소환조사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선거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류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재판에 정식 회부하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요 야당탄압이며 특히 전쟁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안에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대통령실의혹진상규명단》을 구성하고 윤석열역적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역도의 죄행을 수정하는 《제보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경한 태도를 나오고있다. 특히 윤석열역적의 녀편대 김건희의 부정부패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역도를 2차레나 검찰

지금 여야가 벌리는 치열한 《전쟁》의 불길은 《국회》로 번져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리수를 믿고 저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저지시키는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의 《국정》운영에 사상건진 제동을 걸어 주도권을 쥐려 하고 《국민의힘》패들은 어떻게 하나 야당대표의 부정부패의혹을 물고늘어져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민심의 눈초리를 야당에게로 돌려놓려 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경찰이 김건희의 허위경력을 무혐의로 처분한대해서는 64.7%가 불공정한 처리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응답자의 52.3%가 야당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지해나서고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선거때부터 시작되어 끝나지 않는 두 패당의 싸움에 신물이 난 민심이 이능이든 저능이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빨리 현재의 정치적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떤 전쟁에서든 녹아나는 것은 애매한 민생뿐이 아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은 외면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죽이기에만 날뛰는 야간과의 퍼러지는 《전쟁》에 남조선인심도 극도의 환멸을 느끼면서 저주를 보내고있다. 권순남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윤석열과 좌전 당대표 리준석사이의 정면대결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당내의 친윤석열파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의 헌장과 규약을 개정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내오고 반면에 리준석과 그 페키리들은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악을 써내고있다. 얼마전에도 리준석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친윤석열파의 당헌장과 규약개정놀음을 《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 《반헌법적인 쿠데타행위》라고 하면서 공격해나섰다. 그에 합세하여 리준석의 측근들속에서는 이 기회에

파멸의 낭떠러지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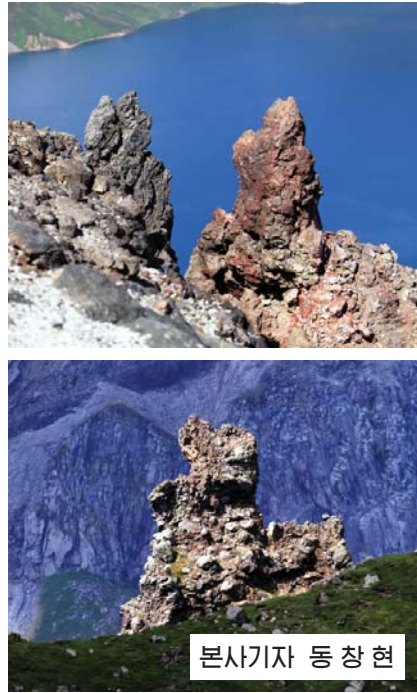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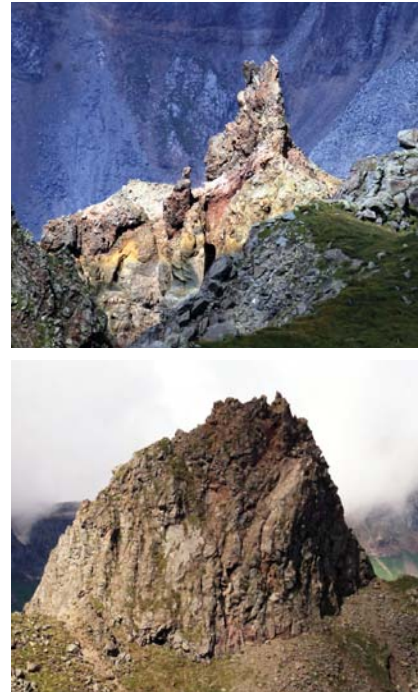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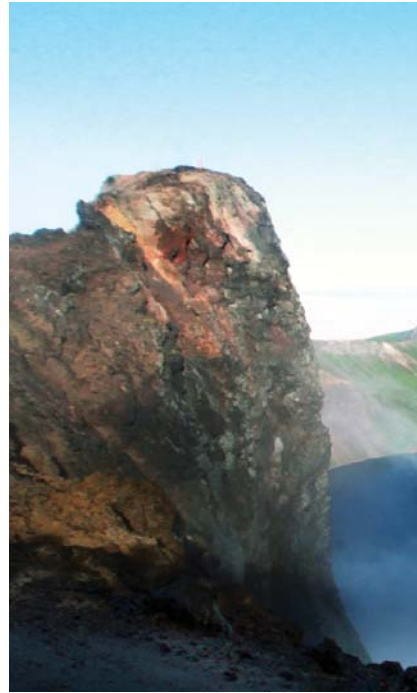
《너 죽든 나 죽든 해보자.》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윤석열과 좌전 당대표 리준석사이의 정면대결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당내의 친윤석열파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의 헌장과 규약을 개정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내오고 반면에 리준석과 그 페키리들은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악을 써내고있다. 얼마전에도 리준석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친윤석열파의 당헌장과 규약개정놀음을 《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 《반헌법적인 쿠데타행위》라고 하면서 공격해나섰다. 그에 합세하여 리준석의 측근들속에서는 이 기회에

아예 당을 장악하여 친윤석열계를 내몰아야 한다고 들고일어났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친윤석열파는 자기 사람을 우두머리로 하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리었다. 이를 두고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아래돌 뽐아 웃돌 매구는 식이다.》고 하면서 리준석패를 들고일어나고 특히 리준석은 또다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정하는 문건을 법에 제출하였다. 법원이 리준석에게 손을 들어주면 새 비상대책위원회도 단명을 면치 못하게 되고 그 반대이면 리준석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두 파벌간의 사생결단의 싸움에 《국민의힘》의 신진의원들과 중진의원들까지 말려들어 서로 아귀다툼을 벌

리고있다. 한편 《국민의힘》내에서 새 원내대표선출문제를 둘러싸고 10여명의 권력야심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암투를 벌리고있다. 특히 친윤석열파는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추대》의 방법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있고 비윤석열파는 권력독점 현상을 없애야 한다. 《대통령》과 거리를 둘수 있는 인물을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친윤석열파들을 강하게 견제하고있다. 너를 죽어야 내가 산다는 악육강식의 법칙을 생리로 하는 보수패당이 벌리는 지금의 추태를 보면 그야말로 체질상 그대로 돌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생결단이다. 조성국

오죽하면 남조선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이 《버림받은 대치로 치닫는 파멸사》, 《당론관수습까지의 침착소용》, 《윤석열이든, 리준석이든 둘중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날 싸움이다.》, 《《국민의힘》의 붕괴는 피할수 없겠는가.》라고 비난조소하고 있겠는가. 당권쟁탈을 위한 싸움, 세력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패자는 역적당의 붕괴가 시간문제라는것을 보여주었고있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는 말이 있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권력싸움을 벌리면서 《국민의힘》 패거리들은 운명의 총각결인 파멸의 낭떠러지로 거침없이 질주하고있다. 조성국

백두산의 절경들 (1)



본사기자 동창현

뼈강화용 건강식품 비타민D칼시움영양알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체활동에 필요한 비타민D와 칼시움의 보충은 음식물섭취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몸안에 비타민D나 칼시움 부족하면 어린이들은 구루병에 쉽게 걸려 성장발육장애가 올 수 있으며 노인들의 경우에는 뼈성검증, 뼈연화증 등이 생기거나 약한 타격에도 뼈가 골절되곤 한다.

특히 폐경기여성들이나 임신부, 애기어머니들은 비타민D와 칼시움을 매일 보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화국의 문수기능성식품 생산소에서 개발생산한 비타민D칼시움영양알이 각종 뼈질환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키크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뼈강화용 건강식품-비타민D칼시움영양알은 동물성칼시움과 비타민D를 기본원료로 하여 체내에서 이온화와 분해를 촉진시키고 흡수율을 높일수 있게 가공하여 만든



천연건강식품이다. 영양알에 들어있는 비타민D와 칼시움성분은 호상협력 작용을 하면서 뼈밀도와 뼈량을 증가시켜 뼈조직을 든든하게 하여주는 동시에 뼈의 변형이나 골절을 예방 및 치료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이 영양알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구루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으며 중, 노년기 뼈성검증이나 골절의 예방치료, 임신부들의 건강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태천 옷칠 공예

평안북도 태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옷나뭇에서 얻어낸 옷을 칠감으로 리용하여 쫄보 있는 공예품들을 만들고 있다.

넓은일작은키나무인 옷나무는 공화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퍼져있으며 특히 태천군에서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다.

태천지방의 옷은 특산물로서 부드럽고 윤력이 나며 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천연칠감인 옷으로 밥상, 밥그릇, 화장함, 옷장, 다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용품과 공예품을 완성하였는데 기본은 태천옷칠공예를 본보기로 여겨왔다.

태천옷칠공예의 고유한 기법에서 특징적인것은 검은색이 아닌 다른 계열의 옷칠은 거의 찾아볼수 없으며 투명 옷칠을 하는 경우에도 검은 색바탕우에 하는것이다.

각이한 력사적시기를 거쳐 발전되어온 태천옷칠공예 품은 조선봉건왕조말기에 다른 나라들까지 명성을 떨치었다.

태천옷칠공예는 공화국의



올바른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계승발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에 민족적향취를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산이 들쭉한 골에 쥐새끼 한마리라.
평장히 큰일을 할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결국 얻은것이란 조그마한 쥐새끼 한마리란 뜻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큰일을 할듯이 크게 벌려놓았으나 결과는 보잘것 없거나 아예 없는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 까마귀 꿩 잡아먹을 궁리를 한다.
까마귀는 본래 꿩을 잡아먹지 못하는데 꿩을 잡아먹을 궁리를 한다는 뜻으로서 당치않은 생각이나 주체념은 행동을 보고 비겨 이르는 말.

◆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① 자기가 한 일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엉뚱하게 둘러맞추는 행동으로 비겨 이르는 말.
② 제가 저질러놓은 옳지 않은 행동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그 어떤 다른 수단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함을 비겨 이르는 말.

사화 금강산과 김삿갓 (1) 글 박종철, 그림 채대성

어느날 삿갓이 내금강의 만폭동에 가느라고 허술한 행색을 하고 표훈사쪽을 지나게 되었다.

때는 한창 여름이어서 사방에 목욕이 우겨졌는데 나무그늘아래에 온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벽적 고아대고들 있었다.

알고보니 량반들이 둘러앉아서 한창 글짓기대회를 하고있었다.

글을 짓는 일이라니 삿갓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가만히 옆에서 듣고있는데 금강산을 노래한다는 시들이 모두 허황한 빈소리뿐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하나도 마음에 드는것이 없었다.

삿갓이 끝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슬며시 나무그늘에서 나서면서

나는 청산이 좋아 들어 가는데
룩수야 너는 어이하여 나 오느냐

라고 큰소리로 읊었다.

한창 열들이 나서 글자랑에 여념이 없던 량반들이 문득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보니 하도 의미심장한데가 있는 지라 곧 삿갓을 불러세웠다.

그중 구석쪽에 앉아있던 한 량반이 《당신이 시를 지을줄 아는가?》 하고 물었다.

《지을줄은 모르지만 부를 줄은 압니다.》 삿갓이 이렇게 대답하니 그 량반이 다시 《그럼 어디 불러보라.》라고 하였다.

삿갓이 별로 생각도 없이 《그럼 소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는가요?》 하고 물었다.

량반이 있다고 대답하자 삿갓은 그 두자를 나란히 쓰라고 하였다.

그것을 다 쓰고나자 삿갓은 다시 잣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는가고 물었다. 량반이 있다고 대답하자 삿갓은 그 두자도 옆에다 나란히 쓰라고 하였다.

이어 삿갓은 바위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으면 두자를 더 쓰라 하고 그옆에다는 돌아간다는 글자를 한자 덧붙이라고 하였다.

그런 방법으로 삿갓은 줄을 바꾸어서 산과 물을 가리키는 글자, 이곳저곳을 가리키는 글자를 각각 두자씩 나란히 쓰게 하고는 기이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가 있으면 하나 더 붙여놓으라고 하였다.

그 량반이 영문도 모르고 받아쓰다가 여기까지 와서는 그만 화를 벌럭 내며 《어보, 내가 시를 부르라고 했지 언제 이런것을 부르라고 했소?》 하고는 붓을 집어던

졌다.

그제서야 삿갓은 빙긋 웃으며 《잘되었든 안되었든 내 글 잘하는 량반들과 시흥을 한번 즐겨보았으니 오늘 금강산구경은 재미있게 되는셈이요.》 하고는 그냥 수림속으로 사라졌다.

명하니 앉아있던 량반들이 그제서야 웃음쭈근 모여앉으며 삿갓이 불러준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명한 시가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소나무 잣나무 바위들이 뒤섞인 사이를 돌아다니 산은 산마타 물은 물마타 곳곳이 기이한것뿐이고나

한번은 삿갓이 금강산에서 시를 제일 잘 짓는다고 하는 한 스님을 찾아갔다.

그 스님은 내금강구역 마하연이란 암자에서 살고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금강산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라 산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깊고 또한 한 시를 짓는데서 한다하는 문장가들보다 못지 않은 재간을 가지고있었다.

삿갓이 먼저 《대사가 시를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청컨대 제가 금강산구경을 왔다가 대사와 함께 시구를 겨루는것으로써 한때를 즐길수 있게 하여준다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삿갓의 거동을 살펴보다가 《내가 시를 잘 짓는다는 것은 필시 헛소문이요. 나는 이 산속에서 오십여생을 살아오면서도 아직 금강산에 알맞는 글귀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소. 한때 당신은 어떤 글재주를 가졌길래 나한테 그런 칭을 거침없이 할수 있소?》라고 물었다.

삿갓은 다시 《산이 천하명산이니 생긴대로 부르면 글

《대사의 말씀대로 글재주가 아무리 비상하다한들 어떻게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을수 있겠소. 나는 다만 대사가 산을 몹시 애중한다 하기로 내 또한 금강산을 보는 감회가 볼수록 깊은데 그 심정을 누를길 없으니 이 두 마음을 합친다면 혹시 좋은 시가 나올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것을 바랄뿐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새겨듣고보니 뜻하는바가 있는지라 곧

구름은 발아래에 생기고
삿갓: 저녁에 황천수의 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더라
스님: 사람의 그림자는 물속에 잠겼어도
웃은 하나도 찡지 않았고
삿갓: 꿈속에 청산을 오르고
스님: 꿈속에도
다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네
스님: 산에서 돌이 굴면
천년이 걸려야 땅에 닿을듯
하고
삿갓: 산이 한자만 더 높으면
손이 하늘에 닿을듯하
여라
스님: 가을구름이 만리에
떨었으니
흰 고기비늘이 겹쌓인것
같고
삿갓: 천년묵은 고목의 뽕진
가지는
사슴의 뿔이 높이 솟은듯
하구나
스님: 청산을 돈을 주고
샀더니
구름은 품으로 얻고
삿갓: 맑은 물가에 다달
으니
고기는 저질로 모여드느냐
스님: 절벽은 비록 위태롭게
솟아있어도
그우에서 꽃이 웃는 경치가
좋고
삿갓: 양춘은 비록 아름답
다워도
새는 울며 떠나가니 비감이
생긴다
스님: 물은 절구공이가
되어
절벽을 연방 내려찍고
삿갓: 구름은 옥으로 만든
자가 되어
청산을 재어간다



메추리고기는 단백질,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있을뿐 아니라 닭고기에 비하여 몸안에서의 소화흡수율이 좋으므로 임신부, 늙은이, 체질이 약한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식료품으로 된다.

그러므로 메추리를 일명 동물인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추리알은 닭알에 비해 단백질과 레시틴, 각종 비타민, 광물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있다.

자료에 의하면 메추리알 한알의 영양가는 닭알 3알과



본사기자



도 또한 천하명문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삿갓의 노는품이 만만치 않은데 은연중 패색한 생각이 스며들었다. 청컨대 제가 금강산구경을 왔다가 대사와 함께 시구를 겨루는것으로써 한때를 즐길수 있게 하여준다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스님: 이른아침 립석봉에 오르니